

# 중앙고속도 관설하이패스IC 연결사업 확정

✎ 정태욱 | ⓒ 승인 2022.02.21 | □ 13면

## 국토교통부 최종 허가 동부권 접근성 향상 기대

강원혁신도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앙고속도로 관설하이패스IC 연결 사업(원주시 관설동 일원)을 최종 허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달 원주시와 협약을 통해 오는 2024년 관설하이패스IC 연결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설하이패스IC는 강원혁신도시 등 원주 동부권역 숙원으로 완공되면, 반곡·관설·개운동 등 혁신도시 일대를 비롯한 원주 동부권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남원주IC로 집중돼 있는 진출입 차량 분산 효과와 남원주IC에서 혁신도시까지 9분 정도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설하이패스IC 연결사업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원주 을) 국회의원은 “이번 사업 확정을 환영한다”며 “교통망 확충을 통해 사람이 몰려드는 사통팔달 원주시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태욱



정태욱 tae92@kado.net